

미래 식품산업 육성...전남도, 500억 규모 투자 유치

김이가·남도식품·지웰리브 등 3개 기업과 투자 협약
우수 농수산물 가공·생산·공급망 강화 등 적극 지원

전남도가 500억원 규모의 식품기업 투자를 유치해 식품산업 생태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투자를 약속한 기업에게 투자 요건 완화는 물론, 생산 기반 확대, 판로 확보, 수출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이가, (유)남도식품, (유)지웰리브 등 3개 기업과 434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시에는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김태한 ㈜김이가 대표, 선종선 (유)남도식품 대표, 윤은주 (유)지웰리브 대표가 참석했다.

김이가는 광양 세풍산단에 2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김이가는 수출용 조미김 생산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미 해외 여러국에 조미김을 수출중인 김이가는 이번 투자로 안정적인 제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도식품은 장흥 바이오식품산단에 120억원을 투자해 연육·어묵제조 공장을 설립한다. 남도식품은 우선 연육 생산에 집중한 뒤 장기적으로 전남 수산물을 이용한 어묵 제품 개발에까지 나아간다는 구상이다.

지웰리브는 영광 대마산단에 114억원을 투자, 전남 농산물로 만든 과채주스와 액상차 등을 생산한다.

전남은 식품기업들이 들어서기 좋은 입지 조건

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23년 기준 전남의 농산물 생산량은 전국의 22%였고 수산물 생산량은 무려 58%에 달했다.

특히 친환경 농·수산물 주산지로서 식품기업들의 원재료 확보에 큰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전남산 농수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전남도는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도내 투자 기업을 위해 생산 기반 확대, 가공 및 유통플랫폼 구축, 판로 확대 및 수출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분야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 요건을 완화해 기업이 전남도에 투자할 경우 타·시도에 견줘 더욱 많은 혜택을 보도록 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전남의 식품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남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의료취약지역 중심 공보의 477명 배치

전년보다 57명 감소

전남도는 9일 “신규 공중보건기사 194명을 포함, 총 477명의 공보의를 보건기관 등 276개 기관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배치된 공보의는 전년보다 57명 감소했다. 의과와 한의과가 각각 50명, 9명씩 줄었고 치과는 2명 늘었다. 도는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와 의대 내 여학생 비율 증가, 장기 복무기간(36개월)에 비해 짧은 현역병(18개월) 선호 등이

공보의 감소에 영향을 준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배치 인원은 도내 보건기관 238곳과 지방의료원 3곳, 취약지 병원 응급실 19곳, 병원선 2척, 공립병원 14곳 등에서 도민의 건강을 돌본다.

전남도는 공보의 감소 현상에 따른 지역 의료 공백 상황에 맞서 대 정부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우선 시·군 보건소와 전남도의사회, 공보의, 취약지 병원협회가 참여해 대응 전략회의를 갖고, 향후 국회 토론회를 열어 모아진 의견을 대선 정책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200명에 최대 200만원까지

광주시가 육아휴직자 업무 공백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 신청을 1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광주지역 중소기업에 육아휴직자 대신 고용되거나 파견된 노동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할 경우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신설됐다.

대체인력 노동자가 취업 후 3개월 근무하면 100만원, 6개월 근무하면 추가 100만원씩 1인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받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으로 올해 1월1일 이후 채용된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은 10일부터 광주시 홈페이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 후 조건을 충족한 노동자 200여명에게 지원한다. /정병호 기자 jusbh@



8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자 발대식'에서 '옴つま 자원봉사! 함께날자 감동체전!'라는 주제로 참석자들이 성공개최 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시·군 지자체장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개최 기원 릴레이 동참

첫 주자로 진도군 나서

오는 24일 전남도에서 개막하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앞두고 자치단체장들의 성공개최 기원 릴레이가 시작됐다.

생활체육대축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지자체장들이 성공개최를 희망하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인증샷을 찍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주 개최지인 목포시와 게이트볼 경기가 열리는 진도군이 챌린지 첫 주자로 나섰다. 이후 순서에 따라 각 시·군 지자체장들이 챌린지에 참여한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OK! Now 전남, 활기 UP 생활체육!’을 슬로건으로 목포를 비롯해

전남 20개 시·군, 57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전국 17개 시·도, 2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41개 종목에서 경합을 벌인다.

전남도는 2023년 전국(장애인)체전과 2024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에 이어 올해 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남의 우수 관광·문화·산업·역사를 전국에 홍보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릴레이 챌린지는 생활체육인의 화합과 건강한 체육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단순한 체육대회를 넘어 전 국민의 축제로, 많은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김희수 진도군수

“나만의 특별한 결혼식”...광주시청 ‘빛의 정원’ 야외웨딩 MZ에 인기

4·5월 주말 예약 절반 끝나

광주시청 ‘빛의 정원’ 야외웨딩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합리적 비용에 여유롭게 예식을 치를 수 있다는 장점에 젊은 층들의 예약이 잇따르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시청사 공공예식장 ‘빛의 정원’ 예약이 총 9건(4월 2쌍, 5월 2쌍, 9월 5쌍) 접수됐다.

광주시는 야외결혼식이 주목받는 것은 고물가 시대에 저비용으로 특별한 결혼식을 치르려는 ‘MZ 세대’의 욕구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빛의 정원은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중 1인이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이면 이용이 가능하

다.

주말·공휴일 주간에 가능한 예식장 이용은 1일 1예식을 기준으로 선착순이며 예식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용 희망자는 광주시 총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공유누리 플랫폼에서 예약하면 된다.

결혼식 비용은 시설 사용에 따른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 야외광장 등 실외는 1일 1만원, 실내는 시간당 1만원이며 냉난방비는 별도이다.

꽃장식이나 테이블·의자 등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광주시에 문의할 경우 업체 안내는 제공한다.

식사는 혼주가 원하는 경우 시청 구내식당을 활용해 국수(1인당 5000원)를 제공받을 수 있다. 케이터링(뷔페) 등 음식도 반입가능하지만, 야외광

장에서만 허용된다.

12일 오후1시 시청 빛의 정원에서는 제1호 예비부부가 예식을 진행한다.

광주시는 이날 야외웨딩 전문업체와 함께 예식상담을 진행하며,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8~10일 사전 신청을 받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